

무망감이 청소년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박선영* · 이준*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정보컴퓨터교육학과

The Research on Hopelessness Affecting the Internet Addiction of Teenagers

Sun-Young Park* · Joon Lee*

*Dept. of Information and Computer Scienc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E-mail : ttang197@nate.com · jlee@chosun.ac.kr

요 약

본 연구는 우울증을 일으키는 매개요인 중 단일요인으로 무망감이 청소년 인터넷 중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우선 질문지들의 신뢰도와 문항요인분석을 실시한 후 무망감 우울증상 정도를 보여주는 HDSQ(Hopelessness Depression Symptom Questionnaire) 질문지와 Beck 무망감척도를 보여주는 BHS(Beck Hopelessness Scale) 질문지를 이용 학생들의 무망감 상태를 측정하고 무망감상태인 집단과 한국형 인터넷중독자가진단검사지(K-척도)상에서의 사용자군 간 상관을 비교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질문지의 신뢰도와 타당도는 높았고 문항하부요인을 통해 무망감상태의 학생집단과 인터넷 중독 사용자군에 따른 상관을 비교해본 결과, 모든 하위요인들이 사용자군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특히 HDSQ, BHS 모두에서 인터넷 중독 고위험 사용자군의 평균이 가장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무망감이 인터넷 중독 사용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시사한다.

ABSTRACT

This research is to identify the effects of Hopelessness, as a single factor among intermediary factors causing depression, on the Internet addiction of teenagers. This research measured the teenager students' state of hopelessness using Hopelessness Depression Symptom Questionnaire (HDSQ), which demonstrates the extent of hopelessness depression symptom, and Beck Hopelessness Scale (BHS), which exhibits Beck's hopelessness scale, after conducting the analyses on the reliability of those questionnaires, and question factors. Correlations between the group in hopelessness state and the user group via the Internet Addiction Self-Test (K-scale) was comparatively analyzed. The study result reveals that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questionnaire were high. As a result of the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the hopelessness state group and the Internet addicted user group through sub-factors of the questions, all the sub-factors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particular, the average score of the high risk Internet addicted user group was highest in both HDSQ and BHS. Consequently, these results imply that hopelessness affects the Internet addicted users.

키워드

무망감, 인터넷중독, BHS, HDSQ, K-척도

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터넷 중독과 관련되는 개인의 심리적 특성 중

우울증은 상대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또한 인터넷 중독집단이 정상집단보다 우울증 점수가 높은 것으로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1].

우울증을 일으키는 인지적 이론에 의하면 우울

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 낮은 평가를 하거나 세상과 미래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 이 중에서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은 내담자에게 무기력감을 유발하고 현재의 삶을 포기하게 만들어 낼 수 있기에 특히 주목할 변인으로 보인다. 그런 까닭에 우울증을 유발하는 매개요인으로 무망감에 대한 관심이 새롭게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막연한 우울보다는 미래에 대한 부정적 기대와 학습된 무기력감으로 인해 본인 스스로 부정적 자아를 만들어냄으로써 현실공간이 아닌 가상공간으로 탈출하기 위해 인터넷 사용 빈도가 점차 늘어나 결국 인터넷의 중독적 사용을 유발할 수 있음을 가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무망감이 인터넷 중독을 일으키는 독립된 변인으로 영향력이 있는가에 대해 알아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집단을 대상으로 우울증 정도, 무망감정도, 인터넷 중독정도간의 상관을 비교해 봄으로써 무망감상태인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인터넷 중독의 정도에 따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1.2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우울증의 매개변인인 무망감이 인터넷 중독과 관련이 있는지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한 연구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무망감과 인터넷 중독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지는 적합한가?
 연구문제 2. 무망감상태에 따른 인터넷 중독 사용자군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가?

II. 이론적 배경

2.1 무망감

무망감은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기대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전부터 있어왔던 개념이다. Amramson, Metalsky 및 Alloy는 무망감(Hopelessness)은 '바람직한 성과가 일어날 것 같지 않거나 혐오적인 성과가 일어날 것 같으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어떤 반응도 이러한 가능성을 변화시킬 수 없을 것이라는 기대'로 정의되며, 무망감이 우울증의 충분원인이 된다고 하였다. 또한 이들은 우울증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가능성 중의 하나인 무망감이 충분원인이 되는 우울증의 하위 유형을 무망감 우울증이라고 명명하였다. 우울증의 인지적 증상에는 과거에 경험한 사건에 대한 후회와 자책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가 포함되기에 미래에 대한 일반적인 부정적 기대 즉, 무망감이 우울증에 가장 근접한 원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2]. 따라서 우울증에 가장 근접한 원인 역할을 할 것이

라고 기대되는 무망감을 통해 인터넷 중독간의 관계를 설정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2.2 청소년이란

일반적으로 청소년이란 용어를 adolescence로 표현하는데 이러한 용어는 홀(G. Hall)이 처음 사용한 이후 청소년을 지칭하는 의미로 활용되고 있다. 청소년을 연구하는 사회학자들은 보통 11세에서 14세까지를 청소년 초기, 15세에서 18세까지를 청소년 중기, 18세에서 21세까지는 청소년 후기 혹은 청년으로 구분한다. 이러한 분류는 교육제도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에 다니는 학생 집단과 일치한다.

2.3 인터넷 중독

인터넷 중독(IAD: Internet Addiction Disorder)이란 Goldberg(1996)에 의해 처음 제안된 용어로서, 병리적이고 강박적인 인터넷 사용을 일컫는다. Young(1996)은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문제성 인터넷 사용(PIU: Problematic Internet Use)이라는 개념을 제시하면서, 병리적 도박, 섭식장애, 알코올 중독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통제력을 벗어나 다양한 중독 행동을 보이면서 사회적, 경제적, 직업적 생활에 방해가 되고 고통을 주는 장애라고 정의내리고 있다. 또한 인터넷 중독자들의 성격특성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인터넷 중독자의 54%가 우울증 경력을 가지고 있었고, 또 34%가 불안울, 또 상당수가 만성적인 낮은 자존감을 경험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3].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서는 전국 월1회 이상 인터넷을 이용하는 만 9세~39세 이하 남·여 3000명을 대상으로 "2005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인터넷 이용 형태를 기준으로 중독 유형을 분류한 결과 조사대상자 중 2.4%가 고위험 사용자군이었으며 10.2%는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으로 나타났다. 한편, 초·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청소년의 경우, 고위험 사용자군이 2.6%,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 12.7%로 전체 조사대상자들의 평균보다 중독 정도가 다소 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령에 따라 비교하였더니 만16~19세가 13.6%로 고위험 사용자가 가장 많이 분포되었다[4]. 즉, 청소년기에 인터넷 중독의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III. 본 연구

3.1 연구절차

질문지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검사 시기를 달리하고 4차례의 질문지의 검사대상을 일치시키기 위해 각 질문지의 고유번호를 적은 후 BDI, HDSQ, K-척도, BHS 순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검사대상은 광주광역시 고등학생 321명을 표본으로 하였으며 분석도구로는 SPSS 10.0을 사용하였다.

연구절차는 질문지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다. 검증방법으로 신뢰도 측정 시는 문항내적일관성(Item Internal Consistency)을 검증하기 위해 Cronbach's α 검정방법을 이용하였으며 구성 타당도(Construct validity)를 검증하기 위해 인자분석을 실시하여 문항요인을 알아보고 무망감상태에 따른 인터넷 중독과의 상관을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한다.

3.2 신뢰도 및 타당도

Beck 우울증 척도(BDI)

BDI(Beck Depression Inventory)는 Beck 등(1967)이 개발한 척도로, 우울증 정도를 나타낸다. 0~3점 척도로 구성되어있으며 총점은 0~63점까지이며 4단계의 우울증상으로 우울하지않은상태(0~9점), 경한우울증(10~16점), 중등도우울증(17~29점), 심한우울증(30~63점)으로 정도를 나타낸다.

측정결과, 평균 12.65, 표준편차 10.74, 신뢰도 $\alpha=0.93$ 으로 나타났다.

무망감 우울증상 질문지(HDSQ)

Metalsky와 Joiner(1977)가 개발한 것으로 무망감 이론에서 가정하는 무망감 우울증의 하위 증상들을 8개로 규정하고 이를 평가한다. 하위증상은 '동기적결핍, 대인관계의 의존성, 정신운동 지체, 무에너지, 냉담/무쾌락, 불면증, 집중곤란/반추, 자살에 대한 생각'이 포함되며, 무망감 우울의 구별된 증상들을 반영하는 8개 증상들이 하나의 하위척도를 이루어 전체가 무망감 우울 증상을 측정하도록 구성되어있다.

<표 1> HDSQ의 문항구성요인 및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수	문항번호	Cronbach α
동기적결핍	5	1, 2, 3, 4, 12	0.74
대인관계의존성	4	5, 6, 7, 8	0.75
정신운동지체	10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0.87
불면증	4	21, 22, 23, 24	0.84
집중곤란	4	25, 26, 27, 28	0.74
자살에대한생각	4	29, 30, 31, 32	0.91
전체	31		0.92

-단, 20번 문항제외(성에관한문항)

측정결과, <표 1>에 의하면 HDSQ의 구성은 총 32문항 중 20번 문항을 제외한 31개 문항에 대해 6가지 하부요인으로 이루어졌으며 $\alpha=0.92$ 로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윤소미(2004) "한국판 무망감 우울증상 척도의 타당화연구" 에서 2개의 하부요인(무에너지, 냉담/무쾌락)을 제외한 각각의 요인들에 대한 신뢰도계수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타당도 점수 또한 58.5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eck 무망감척도(BHS)

BHS는 Beck등(1974)이 개발한 척도로, 미래에 대한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생각을 측정한다. 총 20문항으로 자신이 느끼는 바를 예/아니오 중 한 가지에 표기하도록 구성되었으며, 9문항은 역채점하도록 되어있다. 무망감상태아님(0~9점)과 무망감상태(10점이상)로 나누어진다. 무망감 유무를 알아보기 위한 척도기에 신뢰도와 평균은 측정하지 않고 상태의 유무와 관련된 각 질문지와와의 유의확률만 계산하였다.

한국형 인터넷중독자가진단검사(K-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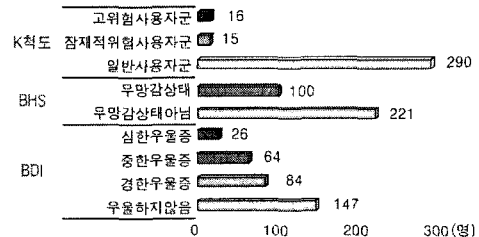
한국정보문화진흥원 내의 인터넷중독예방센터에서 개발된 인터넷 중독자가진단검사는 총 40문항과 7개의 하부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용자군을 나눌 때는 중, 고등학생의 경우 고위험자군(총점이 108점이거나, 1요인이 26점이상이고 4요인이 18점이상이고 7요인이 17점이상), 잠재적위험사용자군(총점이 95~107점, 1요인 23점이거나, 4요인이 16점이상이거나, 7요인이 15점), 일반사용자군(위의조건에 만족하지 않는 사람)으로 나누어진다.

<표 2> K-척도의 문항구성요인 및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수	문항번호	Cronbach α
일상생활장애	9	1, 2, 3, 4, 5, 6, 7, 8, 9	0.85
현실구분장애	5	10, 11, 12, 22, 31	0.83
긍정적기대	5	13, 14, 15, 16, 17	0.89
금단	6	18, 19, 20, 21, 23, 24	0.86
가상적 대인관계지향	5	25, 26, 27, 28, 29	0.81
일탈행동	5	30, 32, 33, 34, 35	0.83
내성	5	36, 37, 38, 39, 40	0.88
전체	40		0.95

측정결과, <표 2>에 의하면 K-척도와 문항요인은 같았으며 인자적재행렬분석을 하였더니 근소한 차이가 있었다. 신뢰도 계수 $\alpha=0.95$ 였으며 타당도 값은 62.0으로 나타났다.

3.3 자료분석



[그림 1] 질문지별 증상단계에 따른 인원수

[그림 1]의 BDI에서는 심한우울증, 중한우울증

이 각 26, 64명으로 전체에 28%로에 해당되며 BHS에서 무망감상태인 학생들이 100명으로 31%로 많은 학생이 무망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척도에서는 고위험, 잠재적위험사용자군이 각각 16, 15명으로 전체에 10%에 해당되었다.

<표 3> HDSQ하위요인과 K-척도간 정준상관분석

정준변량	정준상관계수	Wilk's 우도비	유의확률
1	0.450	0.678	0.000***
2	0.332	0.851	0.000***
3	0.160	0.957	0.840

<표 4> HDSQ하위요인과 K-척도 사용자군간 비교

하위요인	사용자군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확률
동기적 결핍	일반 ^a	3.95	2.82	8.78	.000***
	잠재적위험 ^{ab}	5.65	3.44		
	고위험 ^b	6.79	3.74		
대인관계 의존성	일반 ^a	3.47	2.31	11.61	.000***
	잠재적위험 ^a	4.18	2.56		
	고위험 ^b	6.50	2.85		
정신운동 지체	일반 ^a	8.07	5.77	14.83	.000***
	잠재적위험 ^b	12.59	6.01		
	고위험 ^b	15.57	8.27		
불면증 요인	일반 ^a	1.78	2.42	6.80	.001**
	잠재적위험 ^b	3.71	3.12		
	고위험 ^{ab}	3.36	4.01		
주의력 결핍	일반	3.89	2.53	3.48	.032*
	잠재적위험	5.18	3.58		
	고위험	5.21	2.94		
자살에 대한생각	일반 ^a	1.97	2.69	17.13	.000***
	잠재적위험 ^b	4.24	2.64		
	고위험 ^b	5.71	3.85		

* p<0.05, ** p<0.01, *** p<0.001, a, b : Scheffe의 동일집단군

<표 3>은 HDSQ의 하위요인들이 K-척도에 대해 얼마만큼 설명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기 위해 정준상관을 분석하여 정준변량 3에서 K-척도를 설명할 수 있었다. <표 4>는 HDSQ의 하위요인들이 모두 사용자군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중 고위험 사용자군의 평균이 가장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표 5> BHS와 K-척도 하위요인간의 상관관계

	BHS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요인6	요인7
BHS	1.000	0.166**	0.231**	0.242**	0.282**	0.243**	0.190**	0.179**
요인1		1.000	0.551***	0.456**	0.571**	0.491**	0.573**	0.629**
요인2			1.000	0.503**	0.610**	0.516**	0.695**	0.500**
요인3				1.000	0.659**	0.511**	0.520**	0.521**
요인4					1.000	0.548**	0.627**	0.600**
요인5						1.000	0.591**	0.514**
요인6							1.000	0.640**
요인7								1.000

** p<0.01, 요인1~7 : K-척도 요인

<표 6> BHS에 따른 K-척도 사용자군간 비교

	사용자군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확률
BHS	일반 ^a	6.53	4.91	10.231	.000***
	잠재적위험 ^{ab}	9.29	4.48		
	고위험 ^b	11.93	5.17		

*** p<0.001, a, b : Scheffe의 동일집단군

<표 5>, <표 6>에서는 K척도 사용자군에 따라 BHS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고위험의 평균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Scheffe의 사후검정 결과 일반사용자군과 잠재적위험사용자군, 잠재적위험사용자군과 고위험사용자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I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무망감을 진단할 수 있는 단일 질문지에 의한 인터넷 중독과의 관계를 규명하지 않고 보다 신뢰로운 결과를 위해 HDSQ와 BHS 두 질문지를 통해 K-척도의 사용자군과 각각 비교해본 결과 문항하부요인들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특히 HDSQ, BHS 모두에서 인터넷 중독 고위험 사용자군의 평균이 가장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무망감이 인터넷 중독 사용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시사한다. 향후 지엽적 대상이 아닌 보다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에게 적용해봄으로써 무망감을 예방함으로써 인터넷중독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1] 김유정, "청소년 인터넷 게임 중독 척도 개발 및 심리사회학적 취약성 요인",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02.
- [2] 윤소미, "청소년의 스트레스 귀인양식, 사건귀인이 무망감과 무망감 우울증 증상에 미치는 영향", 카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02.
- [3] 한양대학교 학생생활상담연구소, "2004학년도 안산캠퍼스 신입생들의 정신건강과 인터넷 중독에 관한 연구", 대학생활연구, 제22호, 2004.
- [4]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5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 조사보고05-0, 2005.
- [5] 윤소미, 이영호, "한국판 무망감 우울증상 척도의 타당화 연구:청소년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Vol. 23, No. 4, 1051-1063, 2004.